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및 2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 영 교 (yoonyk@kdb.co.kr)
심 한 용 (hyshim@kdb.co.kr)

◆ **(환율)** 1월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1,400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 지속, 2월은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무역흑자 등으로 하락 전망되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낙폭 제한

◆ **(금리)** 1월 미국 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 2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각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며 유로존은 금리인하가 지속되며 하락 전망

◆ **(주가)** 1월 미국과 유로존 주가는 상승하였고 일본 주가는 하락, 2월 주요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 AI 과잉투자 우려 등 조정 요인도 상존

□ 1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연준과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유로존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 일본은 기준금리 25bp 인상

○ 美 연준은 FOMC(28~29일)에서 기준금리 동결(4.50%)

-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하여 진전이 있었다'는 문구를 삭제, 향후 금리인하 재개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24.9월 이후 첫 동결 결정

  *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yoy) : 2.5('24.8월) → 2.4(9월) → 2.6(10월) → 2.7(11월) → 2.9(12월)

- 파월 의장은 견조한 실물경제와 고용상황 등으로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 연준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강조

○ 한국은행은 금통위(16일)에서 기준금리를 동결(3.00%)

-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경기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나,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동결 결정
- 이창용 총재는 금번 동결은 정치적 요소로 급상승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결정이며, 금통위원 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재개를 시사하였다고 발언

  * 원/달러 환율(원) : 1,377('24.10.31일) → 1,397(11.29일) → 1,479(12.31일) → 1,461('25.1.15일)

○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30일)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예금금리 3.00% → 2.75%)

-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나 임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로우며, 무역마찰 우려 등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을 감안하여 25bp 인하 결정

  * 유로존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yoy) : 2.2('24.8월) → 1.7(9월) → 2.0(10월) → 2.2(11월) → 2.4(12월)

○ BOJ는 금융정책회의(23~24일)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단기금리 0.25% → 0.50%)

-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기업의 임금 상승 흐름으로 물가 전망치*를 상향하며 25bp 인상 결정, 우에다 총재는 경제전망 현실화시 금리인상 지속 시사

  * '24년/'25년 전망(%, '24.11월 → '25.1월) : 경제성장률 0.6/1.1 → 0.5/1.1, 근원물가 상승률 2.5/1.9 → 2.7/2.4

□ '25.2월 주요 국내외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주요 경제 지표 : 고용보고서(7일),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일) 등 주요 지표 결과가 3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3월 동결 확률은 83%, 25bp 인하 확률은 17%,('25.1.31일)

○ 한국, 금통위(25일) :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나, 1%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 저하**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우세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 1.6('24.9월) → 1.3(10월) → 1.5(11월) → 1.9(12월)

** '24년 국내 경제성장률 2.0%, '25년 전망치(한국은행) 1.9%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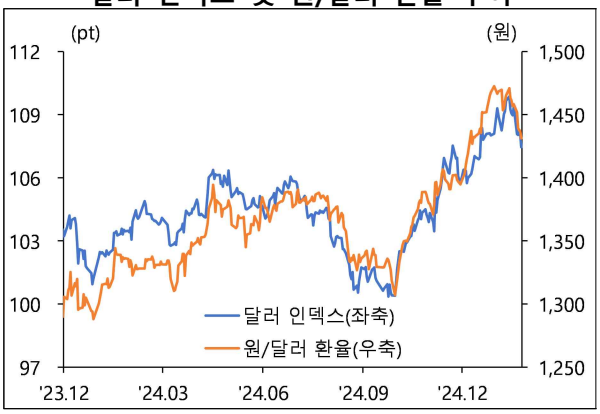
○ (환율) 1월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1,400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 2월은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등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낙폭은 제한

- 1월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정부 취임 및 정책발표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400원대를 상회
- 2월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구속 기소(26일) 등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와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전망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지속시 하락 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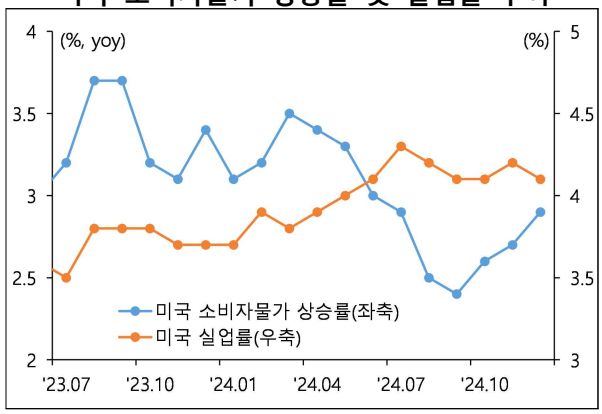
* 국내 무역수지(억달러) : 36.6('24.8월) → 66.6(9월) → 31.7(10월) → 55.87(11월) → 64.9(12월)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억달러) : 36.3('24.8월) → △25.3(9월) → △1.2(10월) →△21.4(11월) →△38.6(12월)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



	'22년말	'23년말	'24.12월말	'25.1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환율	1,264.5	1,294.5	1,472.5	1,431.3	△2.8%
달러 인덱스	103.49	101.47	108.09	107.46	△0.6%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금리) 1월 미국 금리는 보합세를 보였고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 2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며 유로존은 하락할 가능성

- 1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며 상승한 후 하락하며 보합세, 유로존은 종합 PMI 반등('24.11월 48.3→12월 49.6) 등 경기 회복 기대 가운데 상승, 일본 금리는 BOJ의 금리인상 결정 등으로 상승
- 2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영향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유로존 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우려 및 금리인하 지속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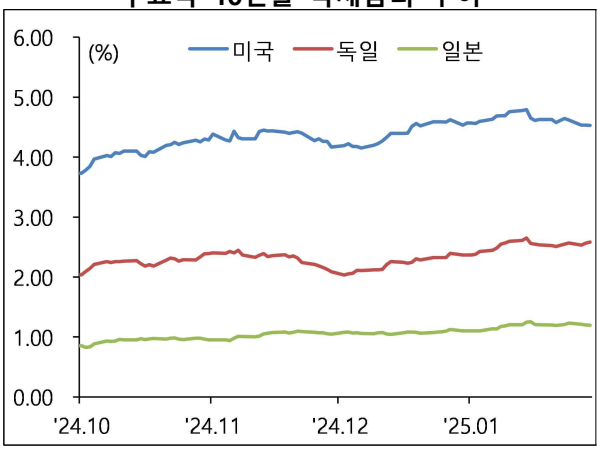
○ (주가) 1월 미국과 유로존 주가는 상승하였고 일본 주가는 하락, 2월 주요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연준의 금리동결 장기화 가능성 등 조정 요인도 상존

- 1월 미국 주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 후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충격으로 상승분 일부 반납, 유로존은 경기 회복과 ECB의 금리인하 지속을 기대하며 상승, 일본은 금리인상과 반도체주 약세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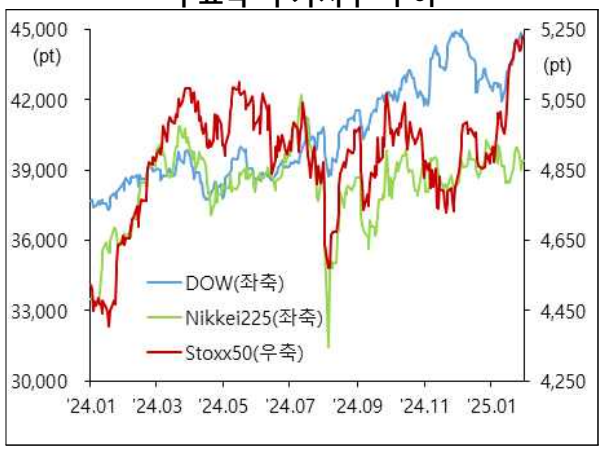
  * 고효율·저비용 AI 모델을 발표하여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AI 및 반도체 관련주 급락

- 2월 주요국 주가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과 AI 과잉투자 우려, 트럼프 정부의 관세장벽 현실화 등의 조정 요인 상존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22년말	'23년말	'24.12월말	'25.1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3.8748	3.897	4.533	4.522	△0.2%
독일채 10y	2.5710	1.979	2.367	2.583	+9.1%
일본채 10y	0.4220	0.623	1.101	1.212	+10.1%
다우존스	32,875.71	37,385.97	42,573.73	44,713.52	+5.0%
유로 Stoxx 50	3,808.82	4,521.47	4,869.28	5,230.66	+7.4%
Nikkei 225	26,340.50	33,169.05	39,894.54	39,405.35	△1.2%

자료 : Bloomberg